

2009. 4. 6 제212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페스티벌 지원으로 지역 개발 유도 (런던)
2. 도시 홍보 위해 세계적 홍보 전문가 고용 (런던)

산업·경제

3. 지역 제휴형 상가 사업 실시 (도쿄)
4.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런던)
5. 지역 문제는 ‘진지한 게임’ 공모전으로 해결 (베를린)
6. 외국기업과 무역할 때 위안으로 결제 시범 시행 (상하이)
7.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영국)
8. 중국 비즈니스 유치 (런던)

건강·복지

9. 수업이 아닌 학교생활 속에서 음악 교육 (베를린)
10. 대학생 취업난 해결 위해 ‘학사 후’ 제도 시범 시행 (상하이)

목 차

11. 노숙자 보호에서 자립 지원까지 (도쿄)
12. 부녀자 보호 위한 핫라인 개통 (북경)

도시환경

13. 전기 자동차 이용 확대에 '전기 혁명'(E-revolution) (런던)
14.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에탄올 이륜차 개발 (일본)
15. 빗물과 태양열 전기로 학교 물 공급 (함부르크)
16. 에너지 절약형·방재 대응형 하수처리 시설 (일본 교토府)
17.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회의 개최 (상하이)

도시교통

18. 과속하면 '천천히', 속도 줄이면 '고마워요' 표지판 (베를린)
19. 자기부상열차 사업 매년 1000억 원 이상 적자 (상하이)

도시계획·주택

20. 중산층 대상 부동산 대출 장려 (브라질)
21. 명소를 개선해 '위대한 공간'으로 재탄생 (런던)

1. 페스티벌 지원으로 지역 개발 유도 (런던)

○ 런던시는 동부 지역 개발 방향을 단순히 토목·건설·기반시설 건설에만 집중하지 않고, 도시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첨단 산업인 문화 창조 산업을 페스티벌 지원 형태로 육성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음.

- 런던시는 2009년 동부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세분화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역별로 다르게 선보여 행사의 통일성과 다양성, 지역 사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주목을 받고 있음.

· 금융 중심지인 중동부(Central East)와 해크니(Hackney), 스트라트포드(Stratford) 등 3대 구역별로 음악에서 전시, 연극, 문학,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함.

- 세부 주제는 ‘내비게이션, 디지털과 예술, 런던 속의 아시아’(Navigation, Art in the Digital Space, Asian Britain and the Subcontinent)임.

·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에 따라, 자전거와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도보 페스티벌을 즐기는 방법을 제안하고, 공연장을 연결하는 자전거 투어를 디지털로 형상화해 전시함.

- 이 지역은 과거 이민자 거주 지역으로 남아시아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으나, 도심에서 멀지 않고 상대적으로 집세가 낮아 젊은 예술가들과 문화 소비계층인 20~30대 사무직이 모여들고 있음.

(www.timeout.com/london/aroundtown/features/6949/East_festival_2009_preview.html)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237)

(www.findeast.co.uk)

(www.visitlondon.com/diyeast)

2. 도시 홍보 위해 세계적 홍보 전문가 고용 (런던)

- 런던방문청(Visit London)은 런던 홍보를 위해 세계적인 홍보 전문가를 고용하고,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를 대상으로 런던 홍보에 주력할 계획임.
- 런던市는 세계 일류 도시 런던市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홍보 전문가는 런던방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런던의 활력, 다양성, 독특함을 관광객에게 전할 계획임.
 -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런던방문청은 유럽과 미국의 지역사무실과 연계해 사업을 펼치기로 함.

(www.visitlondonmediacentre.com/press_releases/press_release/visit_london_hires_edelman_for_global_pr_support)

산업 · 경제

3. 지역 제휴형 상가 사업 실시 (도쿄)

- 도쿄都 이타바시(板橋) 지역은 과거 중소규모 공장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업한 빈 점포가 늘고 있음. 도쿄都는 대기업 본사나 연구 센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공장, 교육 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 새로운 매력을 창조해 홍보하기로 결정하고 ‘이타바시 ii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함.
- 都는 상가가 지역 주민, 대학, 기업, NPO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환경, 복지, 관광과 같은 분야에서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 부흥 사업을 벌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제휴형 모델 상가 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지역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정보 게시판을 설치하고, 음식점과 도쿄 가정

대학과 협력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함.

- 기업, 반상회,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벤트로 공예 교실, 천체 관측 교실, 클래식 연주회 등을 옴.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31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전 세계적으로 창조적 인력과 기업 유치,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활기 촉진이 활발하게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도쿄都의 '이타바시 ii 프로젝트'는 수범 사례임.
- 특히 지역사회 주도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소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은 대안적 지역경제 재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함.
- 현재 서울시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제'나 '산업시프트제'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도입해야 함.
- '이타바시 ii프로젝트'나 서구의 비즈니스진흥지구(BID), 문화산업진흥지구(CIQ)와 같은 유사 사례의 사업 추진방식이나 프로세스, 사업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병순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jbs66@sdi.re.kr)

4.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런던)

- 런던市는 해외 투자자들이 런던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런던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런던이 사업하기에 최고의 장소임을 강조함.
 -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런던이 뉴욕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홍보함.
 - 최근 발표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경제실행계획'(Economic Action

Plan)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를 계획함.

-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담아 ‘현재의 런던’(London Now)이라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 런던市는 외국회사에 사무실과 관련 시설, 업무 관련 전문 자문가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터치다운 런던’(Touchdown London) 프로그램을 연장할 계획임.
 - 유명 중국 기업체 사장 40여 명을 런던에 초청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317)

5. 지역 문제는 ‘진지한 게임’ 공모전으로 해결 (베를린)

○ 베를린市는 지역 개발을 위한 미래지향 사업으로 공모전을 시리즈로 열기로 함. ‘Berlin: Made to Create’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창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임.

- 첫 번째 공모전은 ‘진지한 게임: 게임을 통해 목표를 향하기’(Serious Games: Spielerisch zum Ziel)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학, 산업, 문화, 교육, 마케팅, 정책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적인 이슈들을 구체화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게임 형식으로 제시함.
 - 출품작은 독일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야 함.
 -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면 혁신기술연구소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천되고, 세 명의 수상자에게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함.
- 베를린市는 이번 공모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발견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임.
- 디지털 게임 산업의 발전과 시장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이노베이션을 강화하며, 창조산업 분야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3/03/121765/index.html)

6. 외국기업과 무역할 때 위안으로 결제 시범 시행 (상하이)

- 국제 금융 허브를 꿈꾸는 상하이市는 외국기업과 무역할 때 위안으로 결제 업무를 시범 시행할 계획임.
 - 외국기업은 상하이 교통은행의 해외 분점에 위안 계좌를 개설해 위안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게 됨.
 - 위안 결제는 위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달러로 수금할 때 드는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 환율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큼.
 - 상하이 교통은행에서 위안 국제 결제 업무를 우선 시행한 후, 중국은행 상하이 지점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임.
(www.chinasecurities.xinhua.org/xwzx/07/200902/t20090226_1770045.htm)

7.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영국)

-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런던 전역의 사업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음. 경기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은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노력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 실시
 - 대출과 보조금 관련 재정에 대한 무료 서비스
 - 직원 재교육에 대한 무료 조언
 - 계약서 작성 무료 지원

- 직업교육 관련 학업 과정이나 인턴십에 대한 무료 정보 제공
- 인력개발 전문가의 경력개발 조언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047)

8. 중국 비즈니스 유치 (런던)

○ 런던시는 중국의 비즈니스 방문단과 연속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런던으로 연결하기’(Connect to London)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자 중국의 여러 회사에 런던을 홍보할 계획임.

- 35명으로 구성된 중국의 기업 사절단은 이번 런던 방문을 계기로 런던시와 런던개발청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중국 비즈니스 사절단을 위해 런던시는 런던시장과의 만찬, 런던증권거래소에서의 세미나, 홍콩상하이은행의 발표회, 2012년 올림픽과 관계된 사업 기회에 대한 워크숍 등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www.london.gov.uk/mayors_daily_issue_archive.jsp)

건강 · 복지

9. 수업이 아닌 학교생활 속에서 음악 교육 (베를린)

○ 베를린 교육부는 2009~2010년의 ‘학교의 해를 맞아 베텔스만 음악 재단과 공동으로 ‘음악적인 초등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함.

- 프로젝트의 목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학교생활에서 일찍 체험할 수 있게 해 음악적 감각을 일깨우고 음악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 어린이들에게 음악은 단지 음악과목을 넘어 다양한 감각과 감성을 일깨우

는 중요한 교육 및 교양 수단임.

- 베를린市の 2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함. 선정된 학교의 음악 교사는 2년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함.
 - 재교육의 중점은 음악 요소를 여러 과목의 수업과 수업 외의 학교생활과 연결하는 콘셉트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임.
 - 재교육을 받은 교사는 학생들이 함께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고 춤출 수 있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음의 울림이나 소음 등을 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유희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언어의 리듬을 음악적으로 이해하고 음을 내는 물체를 직접 제작해보는 기회도 제공함.
- 베를린 교육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초등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의 자의식과 소양을 일찍 계발하고 성장에 중요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3/02/121572/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에서 추진하는 ‘음악적인 초등학교’ 프로젝트는 초등학생들의 음악적 감각을 익히게 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젝트임.
 - 음악 수업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음악적 감성을 통한 음악 교육에 도움이 될 것임.
 - 리듬이나 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시범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1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 프로젝트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서울시도 초등학생들이 음악적 소양을 갖고 지속적으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음악적 기본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10. 대학생 취업난 해결 위해 ‘학사 후’ 제도 시범 시행 (상하이)

○ 2009년 상하이시의 대학 졸업생 취업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 ‘학사 후’(學士後) 제도 시행을 추진함.

-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직업 교육을 받는 등 취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함.

- 진학률을 높여 구직자의 실력을 높임.
-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학과 전공을 없앴.
- 실습 기회를 늘려 취업 기회를 제공함.
- 창업 촉진에 힘씀.
- 관련된 보장시스템 구축을 강화함.

- 상하이시의 대학 졸업생은 2009년 15만 8000명으로, 2008년보다 9000명이 증가함.

- 상하이시의 기업 수는 2009년과 2008년이 비슷한 수준이며, 일자리는 2009년에 2008년보다 20% 이상이 감소함.

(www.jfdaily.com/news/xwsh/200903/t20090310_564743.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상하이시는 ‘학사 후’ 제도를 시범 실시해 대학생 취업 돕기에 나섬.

-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직업능력 개발이나 실습 기회 확충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상하이시의 정책은, 취업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공에서 개입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됨.

- 서울수도 불경기 속에서 대학생의 취업문이 날로 좁아지는 상황이라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인턴을 활용하고 있음.

- 대학생의 일시 고용이 아닌 장기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재학생에게는 경력개발이나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11. 노숙자 보호에서 자립 지원까지 (도쿄)

○ 도쿄都是 23개 구를 5개 구역으로 나눠 노숙자 긴급 일시 보호센터와 노숙자 자립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왔음.

- 노숙자 긴급 일시 보호센터에서는 노숙자를 1개월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식사 제공과 건강 상담을 실시하면서 심신의 건강 회복을 도모해 자립 지원 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노숙자 자립 지원센터에서는 취업 의지는 있으나 심신에 문제가 있어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2개월간 입소시켜, 식사 제공과 직업 및 주택 상담을 실시해 취업을 지원함.
- 시설 설치기간은 5년으로, 기존 시설이 5년을 경과하면 같은 블록 내의 다른 구에 차례로 설치함.
 - 기존 시설 운영 종료로 2009년 3월에 강동 기숙사(노숙자 긴급 일시 보호 센터)와 시나가와 기숙사(노숙자 자립 지원센터)를 새로 개설함.
 - 이번에 새로 개설한 시설에는 700여 명의 노숙자를 수용하며, 연간 700여 명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9600.htm)

한 줄 뉴스

- 브라질 상파울루市
 - 자동차 도난 차주에게 2008년도 자동차 소유세 환불
 - 새벽 시간대 지하철과 기차 요금 할인
- 런던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할 계획

12. 부녀자 보호 위한 핫라인 개통 (북경)

- 북경市 조양區 법원은 2006년 4월 개통한 ‘청소년 보호 핫라인’을 ‘부녀자 권리 보호 핫라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호 범위를 확대함.
 - 이는 북경市에서 만든 법률 전문 보호기구로, 조양區 법원 부녀자 권리 합의 재판을 책임짐.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각종 법률문제 자문에 응해줌.
 - 자문 내용과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판사는 일회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임.

(newspaper.bjd.com.cn/bjrb/html/2009-03/04/content_123244.htm)

도시 환경

13. 전기 자동차 이용 확대로 ‘전기 혁명’(E-revolution) (런던)

- 런던市는 전기 자동차 이용 확대 운동을 혁신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며 ‘전기 혁명’(E-revolution) 차원의 운동을 벌일 계획임.
 - 市는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정부 조직 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재정 자원을 조달함.

- 자동차·에너지 산업 관계자와 런던市, 자치구는 저렴하고 이용하기 쉽고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전기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런던市을 유럽 내 전기 자동차 수도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임.
 - 2012년까지 전기 자동차 충전소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함.
-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298)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는 전력원 생산 부문까지 고려한 전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40%나 더 적은 것으로 파악함.
 -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전기 자동차는 주행거리의 한계성과 배터리 장착에 따른 차량 크기의 제약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런던市의 전기 자동차는 성능 및 특성 등을 감안한 ‘세컨드 카’(Second Cars)로, 주로 도심부에서 통근 통행을 포함한 단거리 통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둬.
 - 기업은 소규모 화물 배달과 업무 차량 용도로 주로 사용함.
- 서울시도 현재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린카를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도입 초기에는 전기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도입 분야를 적절히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 분야에서 먼저 도입해 상징성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14.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에탄올 이륜차 개발 (일본)

- 일본 혼다(주)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연료와 가솔린을 같이 쓰는 이륜차를 개

발해 2009년 3월 중순부터 브라질에서 판매하고 있음. 이번에 개발된 이륜차는 브라질에서 연간 약 20만 대 판매를 전망함.

- 바이오 에탄올과 가솔린의 혼합 연료로 달리는 사륜차는 이미 보급됐지만, 개발·제조비용과 판매가가 맞지 않았던 이륜차로는 세계 최초임.
- 바이오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비는 1리터당 38km로 가솔린(58km)보다 낮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 감축할 수 있음.
 - 브라질은 사탕수수 생산량이 세계 제일로 바이오 에탄올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이미 사륜차의 90%가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
- 이번에 판매되는 이륜차는 배기량 150cc로 약 26만 엔(약 390만 원)에 판매되며, 이는 같은 사양의 가솔린 이륜차에 비해 약 5% 비싼 편임.

(마이니치 신문, 2009년 3월 13일)

>>> 전문가 검토의견

-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유발됨.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뿐 아니라 어떤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는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함에 있어 옥수수와 같은 식용작물보다는 설탕 생산 후 남은 사탕수수 부산물, 자트로파, 해조류 등 비식용 식물을 이용해 생산된 에탄올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서울시는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므로, 친환경 이륜차를 보급하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기존의 전동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수소연료 전지 이륜차 상용화에 대비해 수소 이용 기반 구축 방안도 검토해야 함.

/조항문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도쿄
 - 배리어 프리 시설과 에너지 절약 장치를 설치한 새로운 디자인의 도시 전차 운행
- 중국 항주시
 - 초등·중·고등학생 20만 명에게 '의료 진료 쿠폰' 배포

15. 빗물과 태양열 전기로 학교 물 공급 (함부르크)

- 함부르크市 에밀 크라우제(Emil-Krause) 김나지움의 학생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환경 프로젝트인 '솔라 분수'(Solarbrunnen)의 착공식이 최근 있었음.
 - 솔라 분수는 학교 건물에 필요한 물을 빗물로 이용하고, 전기는 학교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을 이용함.
 - 착공식에 앞서 새로운 물 공급 시설의 작동방식을 만화로 보여주는 설명회가 있었음.
 - 화장실에서 쓰는 많은 물을 빗물로 대체할 수 있고, 식수를 절약할 수 있어 효과적인 학교 환경 프로젝트로 평가받음.

(www.hamburg.de/nachrichten/nofl/1243510/solarbrunnen-projekt.html)

16. 에너지 절약형·방재 대응형 하수처리 시설 (일본 교토府)

- 교토府 라쿠난(洛南) 정화센터는 2008년에 하루 약 1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정비함.
 - 이 시설로 절약되는 에너지는 일반 가정 350세대의 사용 전력량에 해당함.
 - 소독 시설에 사용되는 펌프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가동하도록 했으며, 야간이나 일조량이 나쁠 때는 일반 전력을 사용하게 함.

-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축전지도 설치해 방재 시에도 활용 가능함.
 - 소화 가스 발전시설(990kW)도 설치함.
- 교토府는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하수도 시설이 아닌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하수도 시설로 적극 홍보함.
- (www.pref.kyoto.jp/news/recruitment/2009/2/1235002536990.html)

17.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회의 개최 (상하이)

- 2009년은 중국의 11차 5개년 기간 중 배기가스 배출 감소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해임. 상하이市는 목표 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각 업계의 목표를 다시 정하고 결의를 다짐.
- 2009년 한 해 동안 공업부문은 5%, 건축·상업부문은 3%, 관광업은 1%, 의료산업은 2% 감소를 목표로 함.
- 도시산업 구조 개선에도 힘써 매연가스를 유발하는 석탄, 석유 등의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천연가스와 전기 등으로 대체할 계획임.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25095.html)

도 시 교 통

18. 과속하면 ‘천천히’, 속도 줄이면 ‘고마워요’ 표지판 (베를린)

- 독일 보험회사 연합 사고연구소는 지난 몇 달 동안 베를린에 설치된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Dialog-Displays)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가 주행 속도를 줄이는 데 숫자 속도 표시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함.

- 운전자는 숫자와 벌금에 대한 의식을 통해 속도를 줄이기도 하지만 부드러운 이미지와 언어로 된 표지판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임.
 -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 표지판이 ‘천천히’에서 ‘고마워요’로 바뀜. 이 경우 운전자는 경고 대신 칭찬을 받는 느낌이라 속도 준수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게 됨.
-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지역에서 과속 주행 자동차 수가 지역에 따라 43%에서 64%까지 줄어들고 평균속도도 시속 1.8~4.2km 줄어듦.
 - 이 표지판으로 보행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운전자는 주의력이 높아짐.
- 현재 베를린市の 부심 도로에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 84개가 설치되었고, 설치비용으로 약 48만 유로(약 9억 원)가 들었음.
 - 베를린市 도로발전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앞으로 몇 가지 조사를 더 거친 후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 설치를 확대할 방침임.

(www.berlinonline.de/berliner-zeitung/berlin/121275/index.php)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디스플레이 설치·운영은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소개했으나, 아직 확대 시행되고 있지 못함.
 - 기존의 단속·감시 위주의 모니터링 기법에서 대화형 가변 정보 장치를 이용해 주민 참여형 기법으로 전환되는 모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사례가 있음.
- 효과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격이나 정보표출 형태 등을 표준화해 운전자에게 좀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함.

한 줄 뉴스

● 상하이

- 2009년 3월 12일 중국의 식목일을 맞아 녹지 1500헥타르 추가 조성 계획 발표
- 휴대전화로 엑스포(EXPO) 입장권을 다운로드해 입장 가능

19. 자기부상열차 사업 매년 1000억 원 이상 적자 (상하이)

○ 상하이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매년 5~7억 위안(약 1100억~1600억 원) 적자 상태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가 분분함.

- 2008년 초 자기부상열차 역 부근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던 관련 사업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임.
- 적자의 원인 중 하나는 이용객이 20% 미만이라는 것임.
 - 룡양루(龙阳路)와 푸동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 구간은 市 중심지로 연결되지 않아 자기부상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을 수밖에 없음.
- 자기부상열차의 노후화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중국과학원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가 노후화 문제로 운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일을 교환하는 데 9000만 유로가 들었고, 다른 연결부위도 문제가 발생해 수리 견적이 3000만 홍콩달러에 달함.

(news.hsw.cn/system/2009/02/26/050087392.shtml)

도시계획·주택

20. 중산층 대상 부동산 대출 장려 (브라질)

○ 브라질 연방정부는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함. 이 법안은 대통령 인준만을 남겨놓은 상태임.

- 첫 번째 대책은 퇴직금을 담보로 기존 최고 35만 헤알(약 1억 8000만 원)에서 앞으로는 최고 50만 헤알(약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 두 번째 대책은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이 때문에 계약금 부담이 줄어들음.
- 새로운 부동산정책으로 新중산층은 100%까지 대출할 수 있어, 월세 수준으로 부동산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됨.
 - 퇴직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 최고 13만 헤알(약 7000만 원)까지 해당됨.
 - 상파울루 대도시권, 리우데자네이루, 연방특구(브라질리아) 지역에 한해 적용됨.
 - 이외 지역의 경우 최고 8만 헤알(약 4000만 원)까지 가능함.
 - 월 가족소득이 최고 3900헤알(약 200만 원)인 경우에 퇴직금을 담보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음.
-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건설 분야 장려 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지난해에 이어 건설업계가 계속 활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임.

(economia.uol.com.br/ultnot/valor/2009/02/09/ult1913u101742.jhtm)

21. 명소를 개선해 '위대한 공간'으로 재탄생 (런던)

○ 런던시는 주요 공공공간을 대대적으로 재단장하는 데 투자할 계획임. 런던을 대표하는 주요 명소를 개보수하는 '위대한 공간'(Great Spaces) 프로그램을 실시해 런던이 살고 일하고 방문하기에 더 매력적인 장소로 재활성화하고자 함.

- 명소 개선 사업은 자치구별로 개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도시설계위원회가 심의한 뒤 ‘런던시장이 지정한 명소’로 명명해 시설을 개선함.
 - 명소를 지정하면 해당 시설의 권위를 살리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2009년 명소 개선 사업 예산은 총 20만 파운드(약 4억 1300만 원)이며 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 명소 홍보 등에 주로 쓰임.
-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공공공간을 잘 정비해 수백만 명의 사람이 방문하게 만드는 것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297)